

“빛으로 움직이는 로봇,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GIST, '2025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서 태양광 로봇 체험 프로그램 운영

- 10월 18~19일 '2025 국립광주과학관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 참가해 태양광의 원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교육 부스 운영... 300여 명 참여 성황
- GIST RISE 사업단, '2025 광주라이즈사업' 일환으로 시민의 '에너지 리터러시'와 지속가능성 인식 제고 위한 참여형 과학체험 기획...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과 지역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 국립광주과학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리터러시 & 메이커톤' 프로그램.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0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25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참가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 '빛 에너지의 힘, 움직이는 로봇!'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광주과학관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과학관 전역에서 개최한 대규모 축제인 '가을 과학산책'을 부제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융합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성과 과학적 영감을 선사했다.

GIST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 단위 사업인 '2025 광주라이즈사업'에 참여해, 광주교육대학교와 함께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과제(책임자: 강홍규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책임연구원)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GIST RISE 사업단(단장 권인찬)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해 미래 에너지 인재 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 부스는 이틀간 총 12회차로 운영됐으며, 약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기후·에너지의 기초 개념을 배우는 에너지 리터러시 교육 ▲태양광 에너지 실습 키트를 활용한 메이커톤 활동 ▲생활 속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팀별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빛의 세기와 태양광 패널의 각도에 따른 출력 변화를 실험하고, 직접 로봇 키트를 조립하며 전기에너지의 흐름과 변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약 3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해 친환경에너지의 원리를 배우고, 태양광 조립키트 실습을 체험하고 있다.

한 참가 학생은 “태양광으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니 전기의 힘이 눈앞에서 느껴지는 것 같았다”며 “직접 만들어 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과제 책임자인 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강홍규 책임연구원은 “학생들이 태양광의 원리를 직접 배우고, 로봇을 움직이는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함께 키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립광주과학관, 광주교육대학교 등과 협력해 참여형 에너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IST는 국립광주과학관과 협력하여 전시·교육·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서비스를 공동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